사람중심! 경북세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6. 9. 1(목)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❶ **경북도, 울릉도 폭우피해 복구에 총력전** 김관용 도지사 긴급영상회의, '주민우선, 안전복구' 지시	재난대응과	 사진별첨
❷ **경북도, 신도청시대 전략적 조직개편 단행** 도청이전후 전략 재편과 기능조정을 위한 대응적 조직개편	정책기획관실	
❸ **베트남 "새마을유치원" 오픈으로 닝투언성에 꿈과 희망을** 현지 밀착형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베트남 주민들 및 정부 '큰 호응'	새마을봉사과	 사진별첨
❹ **독도 문예대전 김점숙·이상민 씨** 大賞 4천여점 응모, 1일 시상식, 독도박물관 등 순회전시	독도정책관실	 사진별첨
❺ **지역 중소기업 주광정밀㈜ 윤재호 대표 대한민국 명장 선정** 컴퓨터 가공분야 대한민국 최고기술 인정받아	기업노사지원과	사진별첨
❻ **경북도, '행복한 추석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 주력'** 시군·유관기관 합동,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업노사지원과	
❼ **경북도, 추석물가 대책 풍성한 한가위 준비** 간부공무원 시·군 물가안정책임관 구성해 물가 단속	민생경제교통과	사진별첨
❽ **가족과 함께 '누에와 나비 체험한마당' 에 놀러 오세요** 9월2일부터 3일까지,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	잠사곤충사업장	
❾ **9월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위택스(wetax)에 6개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세정담당관	
❿ **가을철 산악·고층건물 사고대비 인명구조 특별훈련** 로프 이용 인명구조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안전경북 실현	구조구급과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작 성 자	과 장	박 재 민		
			사무관	이성언	담당자	이진호
		연 락 처	054-880-2352		CP	***-****-8133

경북도, 울릉도 폭우피해 복구에 총력전

- 김관용 도지사 긴급영상회의, '주민우선, 안전복구' 지시 -
- 응급복구비 10억 원 투입, 특별지원반(3명) 편성 긴급 파견 -

"주민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김관용 도지사는 9월 1일 울릉군과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하성찬 부군수로부터 폭우피해에 대한 종합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총 43가구 76명이 대피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이재민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구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생활필수품의 경우 비축분량이 넉넉하여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말했다. 울릉도 일원에 여전히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피해복구도 우선순위를 정해 차분하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울릉도에서 공사 중인 민간기업 현장 관계자들과 잘 협력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후 전략적으로 추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히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울릉도는 바위산이기 때문에 바위가 물을 머금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현장조사반도 안전을 위해 복수로 조를 짜서 파견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연재해는 완벽히 막을 수 없지만 복구는 사람의 노력과 손에 달렸다.” 며 복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울릉군에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가옥침수 35동, 차량침수 15대, 일주도로(국지도90호선)상 가두봉터널 붕괴 등 도로시설 35개소, 소하천 제방붕괴 1개소, 일반사면 유실 등 9개소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0억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237명, 울릉군내에 결성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165명 등 437명의 인력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18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응급복구 현장에 투입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도민안전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6명의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우선 재해대책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3명을 현지에 긴급 파견 지원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5개항로 여객선 9척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고, 일주도로 3개소(통구미터널~남양터널, 사동항~통구미마을, 사동1리~통구미마을)는 월파 및 낙석으로 통행이 통제되어 있으며, 어선 196척 모두 꼼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작 성 자	과 장	김 호 진		
			사무관	임휘승	주무관	정창호
		연 락 처	054-880-2123	C·P		

-*-5039

경북도 신도청시대 전략적 조직개편 단행

- 도청이전후 전략 재편과 기능조정을 위한 대응적 조직개편 -

- 도정핵심 일자리창출분야 정책기능 강화와 신규 일자리영역 공격적 대응 -

- 동해안발전본부 이전·강화와 연계한 동남권 정책·조직기능 대폭 확대 -

도민안전실 재편, 소방 현장 조직·인력 대폭 강화로 도민안전 최우선 -

경상북도는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신청사 개청이후 많은 노력으로 신도청시대 도정이 빠르게 정착·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규모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도청이전후 전략재편과 지역균형발전, 기능조정을 위한 대응적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주요 개편내용은 일관되게 김관용 도정의 중심에 있는 일자리창출 분야의 정책기능 통합·강화와 신규 일자리영역인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신설, 도청이전후 신도청권역과 함께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동남권 정책·조직 확대와 동해안발전본부 이전·강화, 신도청시대 무엇보다 도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한 도민안전실 재편과 현장 소방 조직·인력의 대폭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경상북도 도정의 핵심은 일자리창출이다. 전국 최초로 일자리창출단을 만들고 금년초 청년취업과를 별도 신설해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올인해 왔다.

신도청시대 이번 조직개편은 이러한 일자리 창출분야 정책기능 강화와 신규 수요에 공격적인 대응을 위해 일자리창출단의 개별적인 일자리 사업과 민생경제교통과의 경제정책 및 전략, 교통업무를 통합·강화한 '일자리경제교통단'으로 재편하여 일자리창출 업무와 성과가 더욱 체계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신영역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한편,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경상북도가 진보정책의 대표로 상징되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으로 앞으로의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역단위 기업지원 등 다양한 경제정책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을 189개사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4일 (예비)사회적기업을 21개사 선정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이전·강화와 연계한 동남권 정책·조직 기능 대폭 확대를 위해 동해안권 해양업무와 수산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지사 직속 '해양수산정책관'을 국 단위급 조직으로 확대 강화했다. 주요 담당업무인 해양·수산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해양정화 및 환경개선,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 어촌 종합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해양·수산진흥에 관한 사업 등이 내실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원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동해안의 원자력산업정책과 안전을 강화하고 원전건설 현장중심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원자력산업정책과를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으로 개편하여 동해안발전본부로 이관·설치했다.

이는 도청이전에 따라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의 발전과 주력산업 강화를 위한 동해안 해양·수산정책 및 기능을 확대하여 동남권 전략부서화 하는 한편, 향후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이전에 대응하여 동남권 주민들과 소통협력 증대를 위해 기능·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차원의 개편이다.

신도청이 조기에 정착하고 도정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업무에도 더욱 충실을 기한다. 이를 위해 도민안전실 재편과 소방 현장 조직·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도민안전 및 민생현장을 꼼꼼히 챙겼다.

도민안전실의 정책기능과 부서인력을 재조정하는 한편,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비과를 안전정책과로 통합하여 강소조직으로 재편하였고, 재난유형별로 체계적인 대응과 조치를 위해 생활안전과를 '사회재난과'로,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개편하여 재난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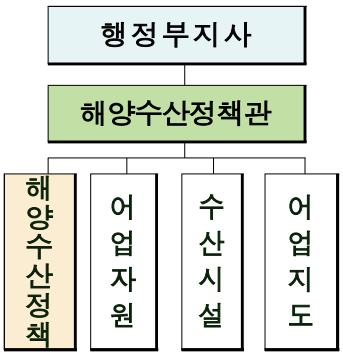
또한, 현장에서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직접 챙기는 소방공무원을 163명을 증원하여 현장 119안전센터를 확대하고 현장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 지휘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현장업무 수행을 위해 7개 소방서에 소방령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대응단'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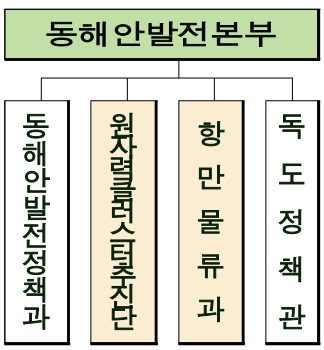
이와 함께, 민·관 교육훈련 수요 급증과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현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해 소방학교에 '교육훈련과'도 신설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전략적인 조직개편과 관련, 전체 부서수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의 인원은 과감히 줄이고 신규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증원없는 기능재편'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신도청시대 안정적인 도정수행 바탕위에 새로운 전략의 체계적인 실현과 소외되는 지역없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9월 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5일에 시행될 계획이다.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경제교통단
청년취업과
사회적경제과
기업노사지원과
글로벌통상협력과


행정부지사
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정책
어업자원
수산시설
어업지도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항만물류과
독도정책관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작성자	과 장	이 제 명		
			담 당	이승택	주무관	황보경화
		연락처	054-880-2881	C·P		

-*-2248

베트남 "새마을유치원" 오픈으로 닝투언성에 꿈과 희망을

- 현지 밀착형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베트남 주민들 및 정부 '큰 호응' -

경상북도는 9월 1일 예천군과 함께 조성중인 베트남 닝투언성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인 탄미마을에 새마을유치원을 개소하고, 새마을운동 정신이 깃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 가능한 새마을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아동 성장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최근 베트남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대와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등 다양한 협력사업 확대와 맞물려 현지지역 주민들과 베트남 정부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도는 현재 9개국 27개 마을에서 새마을조직을 육성하고 의식교육, 생산기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새마을운동 연구소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와 세네갈에 3개의 연구소를 개소했다.

또한 매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화된 새마을운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새마을운동을 공유하고 있다.

닝투언성 부성장은 "양 국가간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경상북도와 함께 조성한 2개 마을(탄미, 탄랍2)은 지역 협력의 산실이다. 그간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지역 사회를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보았고, 이번 새마을운동 유치원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며,

“특히, 지역에서의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본고장인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싶다” 고 말했다.

또한, 마을주민들과 현장을 둘러본 후 새마을운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베트남 새마을운동 연구소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구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우병윤 경상북도 정무실장은 “어릴 때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경험해 본 세대로써 새마을운동의 저력을 확실히 알고 있다” 며, “새마을운동을 경험한 세대의 아이들이 베트남을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전했다.

아울러 “베트남 농촌개발에 기여하고 한국의 가난 극복과 도농 격차 해결 등 지역발전 성공경험 전수를 위한 국립호찌민 대학교 베트남 새마을운동연구소 개소로, 베트남 및 메콩 델타 지역 등 인도차이나 반도를 포괄할 새마을운동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돼 새마을운동 현지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닝투언성이 새마을운동 연구소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와 전 연령층에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고 말했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베트남 닝투언성 새마을시범마을조성지 방문

방문개요

○ 일　　시 : 2016. 9. 1(목) 08:00~16:00

○ 장　　소 : 닝투언성 탄미마을, 탄랍2마을

○ 참가인원 : 100명 정도

- 닝투언성 부성장, 닝성현 당서기장, 닝성현 인민위원회 주석, 부주석 및 마을주민, 새마을 봉사단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새마을유치원 개소, 사업지 현장점검, 공무원·주민 면담, 단원격려

시간계획

시간 계획		주 요 내 용	비　고
08:00~09:00	60	· 이동 및 마을 도착	
09:00~11:00	120	· 탄미 마을 방문 – 사업현황 보고 – 주민간담회 – 유치원 개소식	
11:00~12:30	90	· 오찬	
13:30~16:00	150	· 탄랍2 마을 방문 – 사업현황 보고 – 주민간담회 – 사업지 방문	

마을현황

구 분	탄미	탄랍2
인 구	342가구 1,404명	315가구 1,160명
종 교	불교	불교
주요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마을회관	초등학교, 유치원, 마을회관
주요작물 및 가축	벼, 카사바, 사탕수수, 가축 등	쌀, 옥수수, 돼지, 소 등
새마을사업	- 새마을조직 육성 및 유아교육 - 마을안길포장, 농수로 정비 - 망꺼우 시범포 운영 - 사탕수수 재배	- 새마을조직 육성 및 유아교육 - 마을회관 증축 및 마을안길포장 - 농업용수로 개설 - 벼 시범포 운영 및 양돈사업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실			
		작 성 자	정책관	이 강 창		
			사무관	장채식	주무관	최윤정
		연 락 처	054-880-4179	C·P		

-*-1795

독도 문예대전 김점숙·이상민 씨 大賞

- 4천여점 응모, 1일 시상식, 독도박물관 등 순회전시 -

경상북도는 1일 오후4시 도청 동락관에서 ‘제6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일반부 시부문 김점숙(구미) 씨의 ‘침묵의 소리를 보다’와 경상북도지사상에는 일반부 미술부문 이상민(울산) 씨의 ‘절경’이 각각 수상했고,

청소년부에서는 시부문 박성은(구미 선주중 3년) 양의 ‘독도 우체통 이야기’, 서예부문의 임재민(안동 일직초 5년) 군의 ‘대한독도’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에는 시부문 이미순(양산) 씨의 ‘독도’, 산문부문 박시윤(울릉) 씨의 ‘독도, 홀로아리랑’, 미술부문 이현주(구미) 씨의 ‘행복연가’, 서예부문 류기철 씨의 ‘남이장군시’가 각각 뽑혔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에는 산문부문 김여향(포항제철서초 6년) 양의 ‘내 마음 속의 독도’, 미술부문 김정은(마산구암초 6년) 양의 ‘무제’, 미술부문 박예찬(송곡고 3년) 군의 ‘홀로아리랑’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도재단과 영남일보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경북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문예대전에서는 미술·문학·서예 3개 부문 총3천964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일반부, 청소년부 대상 각각 2명 등 총 998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문예대전의 입상작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 도청,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울릉도 독도박물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서울 용산문화원에서 순회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일반부 미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상민씨는 “독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절경 앞에서 감탄과 환희를 느낀다.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 독도!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을 통해 독도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독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일본이 교과서 왜곡 등 끊임없이 영토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독도 문예대전 참여 열기를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며

“앞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독도가 문화와 예술의 섬으로, 나아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제6회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 시상식

개 요

- ❍ 일 시 : 2016. 9. 1(목), 16:00~18:00
- ❍ 장 소 : 경북도청 다목적공연장(동락관)
- ❍ 주최/주관 : (재)독도재단, 영남일보/(사)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
- ❍ 참 석 : 100여명(수상자 27명, 가족 63명, 내빈 10명)
  - 주요내빈 : 부지사, 영남일보사장, 독도재단이사장, 경북예총회장
- ❍ 내 용 : 시상, 수상작품 상영, 전시·신청사 관람, 만찬 등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공식행사 (60′)	16:00~16:02	2′	·개회·국민의례	
	16:02~16:03	1′	·내빈소개	
	16:03~16:08	5′	·축하연주	도립교향악단
	16:08~16:13	5′	·개회사 및 심사평	경북예총회장
	16:13~16:33	20′	·시상식	수상자(27명)
	16:33~16:38	5′	·인사말	영남일보
	16:38~16:43	5′	·축 사	부지사
	16:43~16:50	7′	·수상작품 상영 및 폐회	수상작 영상
식후행사 (60′)	16:50~18:00	65′	·전시·신청사 관람 / 만찬	1층 로비 / 구내식당

부지사님 하실 일 : 시상, 축사, 전시 라운딩

※ 장관상(일반부 대상, 시부분, 상금 300만원), 김점숙(59년생, 구미)
도지사상(일반부 대상, 미술부문, 상금 300만원), 이상민(59년생, 울산)

제6회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

개 요

❍ 주 제 : 독도, 울릉도, 동해바다, 안용복 등 독도 수호인물
❍ 참가부문 : 미술, 서예, 시, 수필
❍ 주최/주관 : (재) 독도재단, 영남일보/(사)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
❍ 예 산 : 100백만원(독도재단 50, 울릉군 50)

추진일정

❍ 접 수 : ´16. 5. 2(월)~6. 24(금) ※ 접수인원 : 3,858명, 출품작 : 3,964점
❍ 심사/발표 : ´16. 7. 16(토)/´16. 7. 26(화)
❍ 시 상 식 : ´16. 9. 1(목) 16:00, 신도청 강당
❍ 전 시
- ´16. 8. 31(수) ~ 9. 6(화), 신도청 현관 로비
- ´16. 9. 19(월) ~ 9. 23(금), 울릉도 독도박물관
- ´16. 9. 29(목) ~ 10. 5(수), 서울 용산문화원

수상인원

부 문		작품수	입상수	제6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심사결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	입선
합 계		3,964	998	4	7	14	20	307	646
일반부	문학 (시)	176	32	1	1	2	2	13	13
	문학(산문)	50	21		1	1	1	6	12
	미 술	46	26	1	1	2	2	7	13
	서 예	60	38		1	2	2	8	25
청소년부	문학 (시)	719	153	1		2	3	47	100
	문학(산문)	426	110		1	1	2	41	65
	미 술	2,255	488		2	2	4	146	334
	서 예	232	130	1		2	4	39	84

침묵의 소리를 보다

김 점 숙

그곳으로 간다
길들일 수 없는 무한 고립, 그 섬으로 간다
뼈에 뼈가
살에 살이 누우면 숨이 살아나듯
물에 물이 하나의 몸이 되어 바다를 낳았을까
불멸의 수심
여기는 서두를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은, 사방이 성지 같아
하늘이 길을 열어
수억년을 지켰잖아
그녀는 틈만 나면 그곳을 그렸어
바람에 밟히는 파도의 몸살
무리지어 날아 오르는 새
바위 틈에 흔들리는 작은 꽃들을
눈에서 가슴으로 꾹꾹 눌러 화폭에 담았지
슬퍼서 아름다운 기억들은
딱새의 눈과 부리 가슴과 깃털 연한 갈색 꼬리에
눈물 물감을 풀어 곱게 새겨 넣었어
산다는 건 말이지
때를 기다리는 태아처럼 거룩한 성사 같아
누구든 그곳으로 오르려면
시간을 건너 뛸 수는 없는 법
생을 하루같이 조준해 온 매처럼, 긴장과 설레임의 촉을 세워야 해
침묵의 문을 열고
쪽빛 천을 휘감은 도도한 섬처럼 튀어 올라야 해
보고 싶은 사람이 보이게 되면
침묵은 문을 닫겠지

독도 우체통 이야기

선주중학교
3학년 박성은

언제부터인가
독도에 우체통이 서 있기 시작했다.

사람이 만든 우체통과
하늘이 키운 땅채송화가
함께 자라는 그곳

독도에 터 잡은
온갖 생명들 이야기
우체통 속에 들어가 앉는다.

괭이갈매기가 이쁜 아기 재울 때
어떤 노래를 불러 재우는 지

곰딸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향그러운 지

이른 새벽 동살보다 더 빨리 잠 깬
섬땅방아벌레가
얼마나 부지런히 방아 찧는 지

독도 우체통 속에
디 들어가 있다.

두 달에 한 번
그 우체통 활짝 열리고
온갖 소리 쏟아져 나와

우리나라 말로 노래하고
우리나라 말로 재잘재잘 까부는
잘 들어보면

독도의 주인이 누구인 지
의심할 수 없을 걸.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일자리민생본부 기업노사지원과			
		작 성 자	과 장	유 수 호		
			사무관	김제율	담당자	박정호
		연 락 처	054-880-2683	CP	***-****-3775	

지역 중소기업 주광정밀㈜ 윤재호 대표 대한민국 명장 선정

- 컴퓨터 가공분야 대한민국 최고기술 인정받아 -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2016년 대한민국 명장’ 선정에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흑연전극가공 전문기업 주광정밀(주) 윤재호 대표이사가 컴퓨터가공 직종의 명장으로 선정되어, 9월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들을 선정하는 제도로,

명장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휘장, 명패와 함께 일시 장려금, 계속종사장려금 등이 지급된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은 1986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대한민국명장은 616명이 탄생됐다.

윤 대표는 경북기계공고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흑연전극 가공 기술에 눈을 뜨고 1994년에 직원 1명을 데리고 창업하여 현재는 세계최고 수준 품질의 제품생산으로 임직원 200여명, 매출 70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키워낸 전문기술인 최고경영자가 됐다.

창업당시 미개척분야이다 보니, 생산을 못한 날도 많았지만 꾸준한 기술개발로 이제는 일본, 미국, 유럽지역 수출로 해외에까지 금형제작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 후원, 구미시장학회 기부, 기술영재 장학금지원, 모교인 경북기계공고 기부 등 크고 작은 나눔을 실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경북아너 소사이어티 37번째 회원이기도 하다.

기술 하나로 자수성가한 그는, “이것저것 손대기 보다는 한 분야에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가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명장에 오를 수 있었다며, 후학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중심 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싶다고 했다.

장상길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도는 윤 대표를 흑연가공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기술력을 인정해 컴퓨터가공 직종 대한민국 명장후보로 추천했다”며,

“앞으로 산업전선에서 묵묵히 기술을 익히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발굴 격려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마이스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일자리민생본부 기업노사지원과			
		작 성 자	과 장	유 수 호		
			사무관	이준희	주무관	최철영
		연 락 처	054-880-2687	C·P		

-*
-2544

경북도, '행복한 추석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 주력'

- 시군·유관기관 합동,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명절 보내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9월1일부터 9월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23개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검찰청(지역지청), 경북지방경찰청(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불임금 청산지원단'을 가동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청산지원단'은 도내에서 발주·관리하는 관급공사 등에 대해 임금의 근로자계좌 입금과 납품대금의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고,

특히, 하도급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도내 행정기관 내 민원실에 융자제도 안내 팸플릿, 리플릿 등을 비치해 영세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생계난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대부를 추진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알선할 계획이다.

장상길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는 지역의 산업평화와 도민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모든 근로자들이 가족과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고,

“시・군, 사업주, 발주처 등도 체불임금 발생 방지에 다함께 힘을 모아 줄 것” 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일자리민생본부 민생경제교통과			
		작성자	과 장	김 인 형		
			담 당	이성룡	주무관	조연순
		연락처	054-880-2650	C·P		

-*-0355

경북도, 추석물가 대책 풍성한 한가위 준비

- 간부공무원 시·군 물가안정책임관 구성해 물가 단속 -
- 28개 중점품목 바가지요금·가격표시·원산지 위반 등 점검 -

경상북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1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 대책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추석명절 대비 특별 물가안정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인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농·수협 경북지역본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사,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추석성수 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물가지도 단속반 상시 운영, 원산지 표시 준수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전개한다.

도(道)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시·군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여 28개 중점품목 가격동향을 파악 집중관리 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로는 도민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서민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례없는 긴 폭염에 농작물피해가 늘면서 과일·채소값 상승과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일부 품목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추석맞이 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제수용품 공급물량을 추석 전에 평시대비 50% 방출할 계획이다.

장상길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도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도에서는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작 성 자	장 장	정 주 호		
			팀 장	김홍웅	주무관	추은주
		연 락 처	054-530-6604	C·P		

가족과 함께 '누에와 나비 체험한마당' 에 놀러 오세요

- 9월2일부터 3일까지,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 -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상주시 함창읍 잠사곤충사업장 일원에서 '2016 누에와 나비 체험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2010년 나비와 곤충 한마당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이했으며, 양잠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명주산업을 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상주함창명주페스티벌' 과 연계했다.

이번 행사는 ▲나비곤충체험마당(나비안경·잠자리목걸이 만들기 등) ▲전시·판매마당(양잠산물 및 곤충관련 제품 판매, 식용곤충시식 등) ▲부대행사(4D입체 곤충체험관, 나비 소원터널 등)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평소 접하기 힘든 식용곤충요리 및 관련 제품들을 직접 맛보는 체험도 있다.

또한, 9월 3일에는 '아빠·엄마와 함께 곤충 세밀화 그리기마당' 에서는 권혁도 작가와 함께 나비를 돋보기로 관찰하여 종이에 그려보는 특별한 시간도 갖게 된다.

이 외에도 사업장에 피어있는 나비가 좋아하는 꽃을 관찰하고 이름을 맞혀보는 '꽃꼭 숨어라!' 와 4D영상으로 곤충을 체험하는 '4D입체 곤충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는 유아·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주호 잠사곤충사업장장은 “누에와 나비 체험한마당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체험하는 행사인 만큼 찾는 가족과 어린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자연의 소중함과 곤충의 신비로움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붙임 행사계획

2016년 누에와 나비체험 한마당 행사계획

❖ 누에 및 다양한 양잠산물의 체험기회 제공으로 관련산업 활성화 도모
❖ 나비 및 곤충관련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로 곤충산업 저변확대

1 행사개요

누에와 나비체험 한마당 행사

- 일　　시 : 2016. 9. 2(금) ~ 3(토), 2일간
- 장　　소 : 잠사곤충사업장 및 함창명주테마공원내
- 주요참석 : 도, 도의회, 잠업·곤충 관계자 등
  * 함창명주페스티벌(상주슬로시티주민협의회) 행사와 공동 추진
- 주요 행사내용
  - **개막식** : 내빈소개, 국민의례, 개막식 선언, 축사
  - 나비곤충체험마당 : 나비안경·나무곤충·곤충열쇠고리 만들기 등
  - 전시·판매마당 : 잠사100년 사진전, 꽃과 나비 세밀화전시회
    양잠산물 및 곤충관련 전시판매, 식용곤충시식·체험 등
  - 부대행사 : 나비소원터널, 4D입체체험관, 꽃꼭숨어라, 곤충바람개비언덕
    아빠엄마와 함께 곤충세밀화그리기 등

주요행사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비 고
누에와 나비체험 한마당	13:50 ~ 14:00	10′	◦ 개막 길놀이	함창명주테마공원내
	14:00 ~ 14:30	30′	◦ 식전공연(명주패션쇼 등)	메인무대
	14:30 ~ 15:00	**30′**	**◦ 개막식**	메인무대
	15:00 ~		◦ 초청 공연 등	함창명주테마공원, 잠사곤충사업장 일원
	※ 개막식과 별개로 전시체험 부스는 10:00부터 운영			

2 주요내용

명주페스티벌 및 누에와 나비체험한마당 개막식



- 일 시 : 9. 2(금) 14:00
- 장 소 : 명주테마공원 메인무대
- 참석인원 : 500여명
  - 도, 도의회, 상주시, 유관단체, 축제방문객 등
- 주요내용 : 축사, 개막 퍼포먼스 등

누에와나비 체험 한마당

- 기 간 : 9. 2(금) ~ 9. 3(토)
- 장 소 : 잠사곤충사업장/명주테마공원
- 예상방문객 : 30,000명 이상
- **행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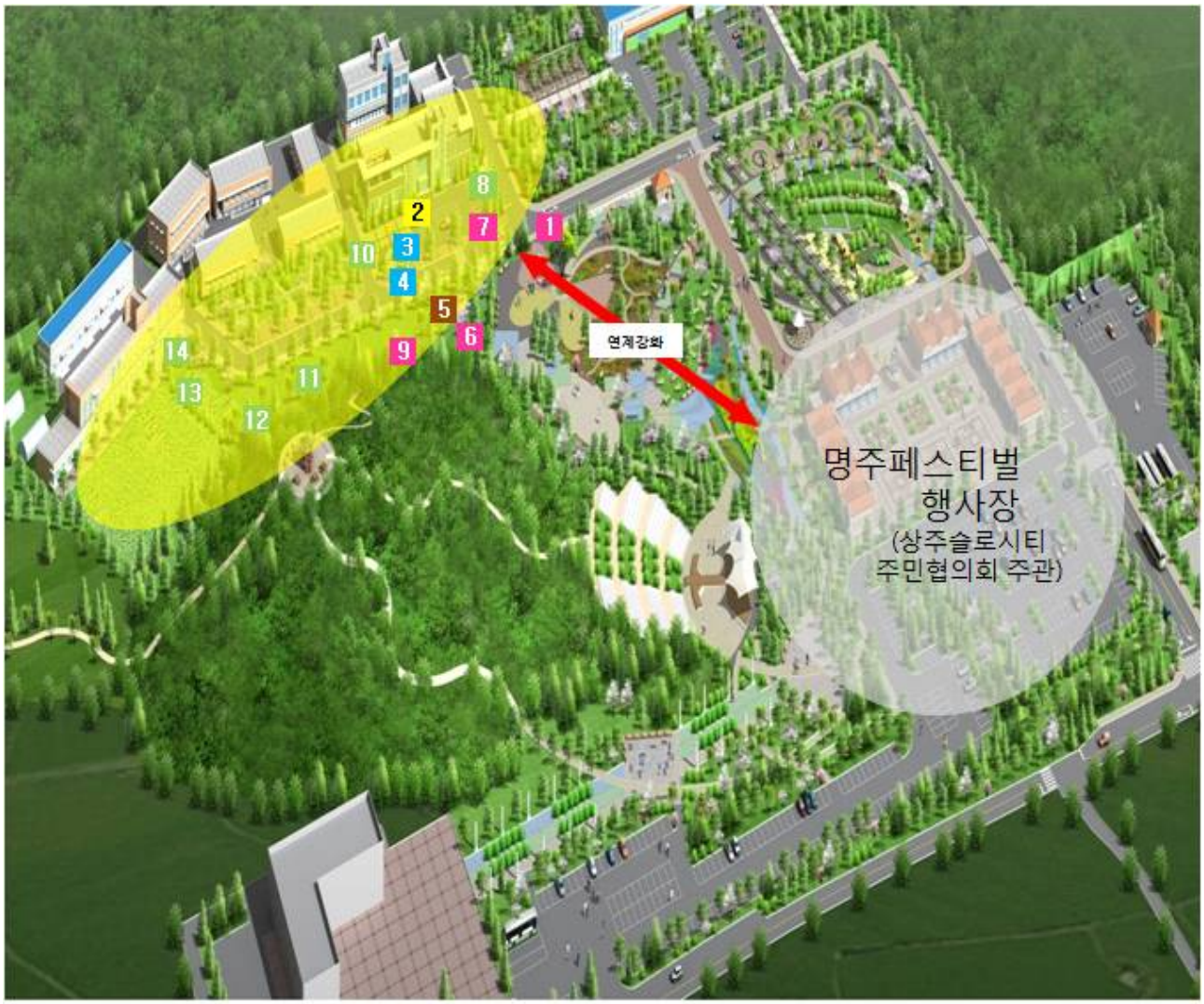
■ 잠사곤충사업장 ■ 함창명주페스티벌

구분	시 간 별	9. 2 (1일차)	9. 3 (2일차)
잠사곤충사업장 명주테마공원	10:00~15:00	■ 초정공연 ■ 학생공연 ■ 사전길놀이 ■■ 개막식(14:00~15:00)	■ 초청공연
명주테마공원 (메인무대)	15:00~19:00	■ 지역민 동아리공연 ■ 초청공연	■ 명주패션쇼 ■ 초청공연
잠사곤충 사업장	10:00~17:00	■ 나비안경만들기 ■ 나무곤충 만들기 ■ 나비·곤충풍선아트 ■ 대나무로곤충만들기 ■ 나비 소원 터널 ■ 양잠산물 전시·판매 ■ 경북잠사 역사사진전 ■ 곤충핸드페인팅 ■ 나비부채 만들기 ■ 꽃꼭숨어라 ■ 멸종위기및산업곤충전시 ■ 4D 입체 곤충 체험관 ■ 곤충세밀화그리기 ■ 식용곤충전시판매 등	

나비곤충 체험마당	9.2(금) ~ 9.3(토) 10:00~17:00	나비안경만들기/ 나무곤충만들기/ 곤충부채만들기 곤충열쇠고리만들기/ 핸드페인팅 /식용곤충시식. 체험
전시.판매 마당	9.2(금) ~ 9.3(토) 10:00~17:00	잠사100년 사진전/ 꽃과 나비 세밀화전시회 양잠산물 및 곤충관련 전시판매전 운영/ 뽕잎꽃차체험
부대행사	9.2(금) ~ 9.3(토) 10:00~17:00	곤충바람개비언덕/ 나비소원터널 / 4D입체체험관 꽃꼭숨어라/ 아빠엄마와 함께 곤충세밀화그리기(9.3오전)

3 행사장 구성

누에와 나비체험 한마당



1 안내센터	9 아빠엄마와 함께 곤충세밀화그리기
2 잠사 100년 사진전 나비안경만들기, 나무곤충만들기 나비.곤충 핸드페인팅	10 4D 입체 곤충체험관 11 누에.곤충 체험 학습관
3 4 양잠산물 및 곤충관련 전시판매 부스	12 나비소원터널
5 대나무로 곤충만들기	13 나비생태원
6 꽃차 체험, 멸종위기종과함께하는산업곤충	14 꽃꼭숨어라
7 8 나비부채만들기, 꽃과나비세밀화전시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작 성 자	과 장	안 창 호		
			사무관	천정창	담당자	심명옥
		연 락 처	054-880-2209	CP		

***
-**

9월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wetax)에 6개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

경상북도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도입했다.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의미

9월 1일부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피씨(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위택스 : 전국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wetax.go.kr)

※ 스마트위택스 : 위택스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조회·신고·납부 서비스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14.7.1 시행)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신용카드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먼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1인당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 당첨자 발표 : 10월 7일(금),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공지, 개별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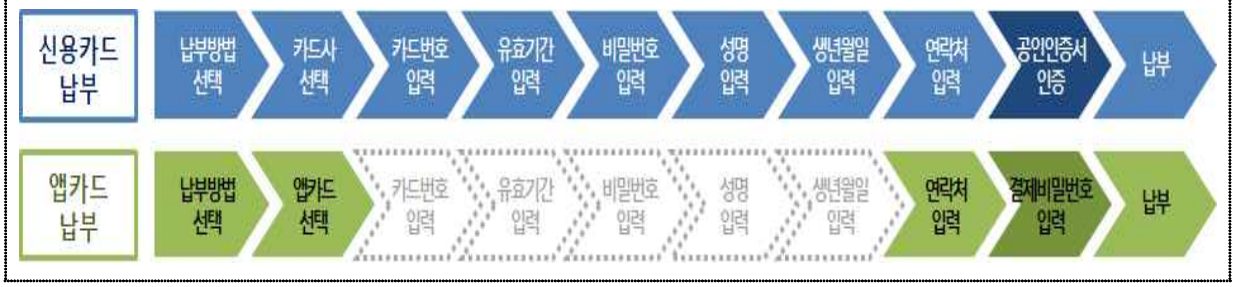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자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포인트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 신용카드 결제금액 확정 후, 사용자에게 청구 시 결제액이 할인되는 서비스

안창호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vs. 앱카드로 납부 : 10단계 → 5단계 >



붙임 **신용카드 모바일 앱카드 이벤트 추진내용**

□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

○ 기간 : ’16. 9. 1.(목) ~ 9. 30.(금)

○ 대상 : 위택스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국민

○ 내용 :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증정(200명, 5,000원)

□ 포인트 적립 및 청구할인 이벤트[신용카드사]

○ 기간 : ’16. 9. 1.(목) ~ 9. 30.(금)

○ 대상 : 지방세·지방세외수입을 자사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고객

○ 참여카드 : 5개 카드사(신한, KB, 롯데, 삼성, 현대)

카드사	유형	할인폭
신한카드 (신한 FAN)	포인트적립 (마이신한)	· 20만원이상 : 2천 포인트 적립 · 50만원이상 : 5천 포인트 적립
롯데카드 (롯데 앱카드)	포인트적립 (L포인트)	
KB카드 (KB국민 Kmotion)	청구할인	· 20만원이상 : 2천원 할인 · 50만원이상 : 5천원 할인
삼성카드 (삼성 앱카드)	캐쉬백	· 100만원이상 : 1만원 캐쉬백
현대카드 (현대 앱카드)	캐쉬백	

경상북도	보도자료 【16.9.1(목)】	담당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작 성 자	과 장	전 우 현		
			사무관	최원호	주무관	김병주
		연 락 처	054-880-6312	C·P		

-*-4675

가을철 산악·고층건물 사고대비 인명구조 특별훈련

- 로프 이용 인명구조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안전경북 실현 -

경상북도는 9월 1일부터 2일간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암벽훈련장에서 도내 17개 소방서 119구조대원 42명을 대상으로 산악사고·계곡고립·고층건물 사고 대비 로프 인명구조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추락, 골절, 계곡고립 등 다양한 산악사고와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구조 상황을 가상해 강도 높게 실시됐다.

훈련은 로프구조의 기초이론을 시작으로 로프를 이용한 인명구조 장비 설치·하강방법, 수직·수평 로프설치 등 구조 대상자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구조기법에 대한 현장 맞춤형 구조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로프 응용 기술과 구조대원들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최대 효율을 높이는 상황별 구조시스템을 적용해 진행했다.

지난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산악구조를 위해 928건 출동해 867명을 구조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426건 출동해 387명을 구조했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야외활동, 등산인구 증가와 함께 산악사고도 증가되는 만큼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중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최고의 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